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문장자	면담자	조용희		
면담장소	우동만100년	면담지원	이혜숙		
면담 일시	2021년 9월 14일	회차	1	시간	55분 43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0876				
구술 개요	8년 전 우동만100년을 시작함, 현재 딸과 둘이서 운영 중, 100년 동안 오래 하겠다는 의미로 우동만100년이라고 지음, 직접 수제로 면을 뽑음, 음식의 맛과 청결을 중요시 여김, 예전 일할 때 본 짜짜이를 반찬으로 만들어 냄,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많아져 매출이 늘었음, 주변 상권이 활발해져 매출에 영향, 한결같은 음식점으로 기억되길 바람				
주요 색인어	인천, 미추홀구, 우동, 식당, 반찬, 수제, 제면, 맛, 청결, 세제, 설거지, 조미료, 재료, 짜짜이, 찐지, 육수, 차별성, 돈가스, 매출, 국수, 손님, 밀가루, 코로나, 배달, 청양고추, 국물, 동네, 재개발, 공원, 콩국수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파일명	
1. 우동만100년을 하게 된 계기			00:00:00~ 00:08:13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3개 ▷ 기록검수확인서 ▷ 녹취문	
- 미추홀구에 10년 전 정착해 8년 전에 우동만100년을 차림 - 식당에서 15년 일한 후 눈여겨보던 것을 베이스로 우동집을 시작 - 100년 동안 오래 하겠다는 뜻으로 우동만100년이라고 지음					
2. 사장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00:08:14~ 00:16:23		
- 제면을 수제로 하는 이유는 대충하는 것과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 - 현재 딸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중,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음 - 음식의 맛,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함					
3. 재료			00:16:24~ 00:26:22		
- 다른 재료는 받아 쓰지만, 짜짜이는 직접 만듦 - 예전 호텔에서 일할 때 짜짜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반찬으로 내보냄 - 차별성을 위해 힘들지만 수제로 만들고 있음					
4. 사장님의 자부심, 찾아오는 손님			00:26:23~ 00:34:33		
- 재료를 받는 것 보다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 - 맛이 한결 같고 이 자리에 계속 있어달라는 손님들의 말씀에 뿌듯함을 느낌 - 이 우동을 먹으면 속이 편해서 매일 오시는 할아버님이 기억에 남					

는 손님임		
5. 코로나의 영향	00:34:34~	
-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안정이 되어 매출이 늘었음	00:37:48	
6. 우동의 맛	00:37:49~	
- 청양고추가 들어가 매콤한 맛으로 아이들은 매워하는 경향이 있음	00:42:08	
- 세 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한 그릇을 다 먹는 경우도 있었음		
7. 주변 동네의 변화		
- 재개발과 수봉공원이 단정되면서 상권이 살았음	00:42:09~	
- 수봉공원과 주인공원 근처에 가볼 만한 식당으로 선정되어 덕을 보았음	00:47:26	
8. 마무리		
- 한결같은 맛으로 건강을 생각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집으로 기억되길 바람	00:47:27~	
- 현재는 딸이 대를 이어서 하기로 했음	00:55:43	